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대학은 sky train tration, 버스 정류장과 무척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와 비슷하다고 느꼈으나 대부분 평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업이 하나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건물엔 갈 일이 적었습니다.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A 건물에는 팀 홀튼(카페), 간단한 음식을 파는 식당과 여러 개의 자판기가 있어 편리했습니다. 가까운 건물엔 서브웨이와 스타벅스가 있어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에도 충분히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Langara College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있었기 때문에 무척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었으나, 이후엔 꽤 한적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밴쿠버에 도착한 다음 날, 모든 학생이 한 교실에 모여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50~70문제 가량이었고, 모두 듣기평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반으로 나뉘었으며, 그 후엔 자신이 속한 반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p> <p>수업은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바인더 교재로 진행됩니다. 교재가 꽤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에 교재를 두고 다녔습니다.</p> <p>선생님은 약 다섯 분 정도가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교실에서는 'English Only'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강압적으로 권하는지, 부드럽게 권하는지는 선생님 특성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p> <p>숙제는 홈스테이 가족을 인터뷰하는 것 하나 뿐이었기에 방과후에 큰 어</p>

	<p>려움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다른 학생들과의 토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토의를 할 때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토의 활동이 무척 유익했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Discover Vancouver 조를 이뤄 밴쿠버 명소를 돌아다닙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고 오랜 시간, 많은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만 가이드 선생님께서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반드시 편한 복장, 모자, 썬크림, 물, 편한 신발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념품샵에 들릴 시간을 주긴 하지만 Gas Town 등의 장소는 이후에도 친구들과 편하게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후 여유가 있을 때 사 오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p> <p>Kayaking 가장 인상깊고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Deep Cove라는 지역에 가는데, 경관이 무척 아름다워 카약을 타고있는 동안은 크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물에 젖을까봐 가지고 타지 않았었는데, 경관이 너무 예쁘니 되도록 조심해서 휴대폰을 챙겨 가 사진을 찍어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안전요원 분들도 유쾌하고 친절하셔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p> <p>Aquarium 아쿠아리움은 생각보다 무척 작아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만 Stanley Park와 가까워 활동 이후 그곳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p> <p>Museum of Vancouver 박물관에서는 주어진 유인물에 있는 퀴즈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조금 귀찮았지만,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p> <p>Whisper trip Whisper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날씨가 추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긴바지에 티셔츠, 후드집업 정도를 입고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상점이 많은 광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의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서 돈을 넉넉하게 챙겨가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기념품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해는 무척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해가 뜨지 않는 날은 하루종일 서늘한 날씨입니다. 첫째주에는 반팔, 반바지만 입고 다닐 수 있었지만 이후엔 날씨가 너무 추워 후드집업을 사서 입고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해 챙겨간 치마는 아예 입지 못했습니다. 꼭 가을 옷도 섞어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날씨가 더 추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편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제 홈스테이 집은 그 어떤 상점도 없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밤엔 조금 무서웠지만, 홈리스를 거의 볼 수 없었기에 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Downtown쪽에 가면 홈리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Langara에서 안내해주는대로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혼자 다니게 될 경우,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엔 small talk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대화를 하며 따라오거나 같이 카페에 가자, 혹은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배정받은 홈스테이 가족은 중국계 부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3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방은 반 지하였는데, 그 층에 제 방과 다른 학생의 방, 그리고 욕실 등이 있어 굳이 윗층에 올라가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p> <p>다만 샤워시간이 짧게 주어지며, 화장실을 완전한 건식으로 써야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아침에 무척 바쁘셔서 늘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가야만 했는데, 그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p> <p>그렇지만 두 분 모두 저녁식사를 할 때엔 제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 간 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 주셨고 다양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평소 중국어로 대화를 하시는 듯 했으나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는 늘 영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이야기해도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며, 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신경 써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느꼈고, 그 덕분에 캐나다에서의 3주를 행복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홈스테이도, 해외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무</p>

	<p>척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0)</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직접 만들어 먹고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으며, 저녁은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p> <p>저는 늘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를 해먹었으며 점심으로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끔 한식이 그리울 때에는 홈스테이 가족분들께 '내일 점심은 필요없다'라고 전달하고, 제가 챙겨온 컵밥을 가져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대부분 친구들과 밴쿠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주는 너무 짧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은 외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경비를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p>
교통	<p>시내교통 관련</p> <p>학교에서 compass card를 주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무척 편했습니다. 구글맵에 검색하면 쉽게 결과가 뜨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심각한 길치임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에서 길을 잃은 것은 첫날 뿐이었습니다.</p> <p>밴쿠버의 길은 대부분 동, 서, 남, 북으로만 구분돼 길을 찾기도 쉬운데다가 Sky train과 버스가 정말 자주 있어서 편하게 돌아다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약 45만원	외식
쇼핑	약 40만원	
기념품(선물)	약 30만원	
입장료(활동)	약 10만원	Canada Place-Fly over/ Maplesood Farm 등
유심칩(한국에서 구매)	약 5만5천원	데이터 무제한
비행기	170만원	왕복(학교)
홈스테이 가족 선물	약 1만원	라면 등
합계	약 3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날씨가 생각보다 춥기 때문에 가을 옷을 꼭 챙겨가세요. 혹은 옷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물통 챙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홈스테이 가족들이나 같은 반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조금 사갔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홈스테이 가족들에게는 불닭볶음면과 라면, 일본 친구들에게는 다이소에서 파는 한국 손거울을 선물했어요. 3주 동안 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엽서 등을 조금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캐나다 물가가 꽤 비싼데다가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더 붙거나, 직원들에게 팁을 줘야하기 때문에 돈이 ping ping 써집니다. 환전을 적당히 한 후, 비상금이 있는 비자/마스터 카드를 추가적으로 챙겨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주는게 어려워서 식당에 가서는 카드를 많이 사용했어요. 보통 카드 리더기에 팁을 얼마나 줄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화면이 떠서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홈스테이 가족들과 미리 메일을 주고받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수건, 세면도구, 슬리퍼 등을 제가 챙겨가야 했어요. 미리 여쭙본 덕분에 저 말고 다른 일본 학생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로 짐 부피를 줄이기 위해 헌 수건들을 가져갔고, 돌아올 때엔 버리고 왔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서의 3주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적응을 하자 그곳에서의 모든 것이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캐나다는 정말 멋진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었고, 캐나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반에 속해있던 일본인 친구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K-POP의 힘은 정말 컸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 영어실력에 엄청난 향상이 있진 않았으나, 확실하게 자극을 받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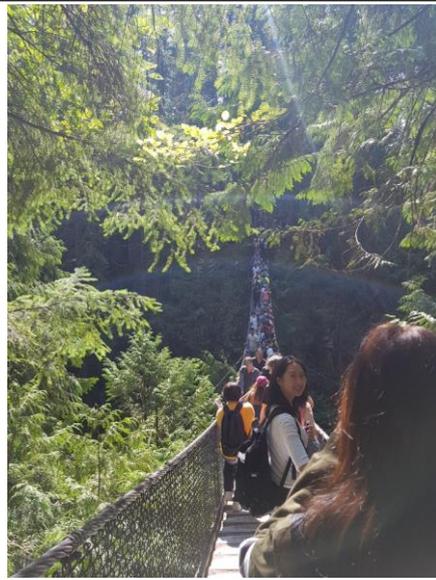
다. 이전까지는 '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영어'만을 공부했기에 영어 공부가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서의 3주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제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심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Grandvill Island</p>	<p>Deep Cove-Kayaking 장소</p>
	
<p>Richmond Night Market</p>	<p>English Bay</p>



Sunset Beach



Lynn Canyon